

시론

국민을 모욕하는 관종과 독설의 정치



김 일 태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국회 원구성 불발로 야권 단독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개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원구성 협상에 때를 쓰다가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복귀하였지만 조롱 섞은 말싸움과 집단 퇴장을 할 뿐이다. 맹목이 집권당인데 공격하고 무기력하며 매일 야당 탓만 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남북갈등, 의정갈등, 유전 개발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비아냥거리고 장외에서는 격하게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상대편이나 국민의 마음을 떠 보거나 변명하는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권력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대다수 정치인들이 비전과 정책보다는 대권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서 인물 타박을 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팬덤에게 부각시키려는 관심종자(關心種子)의 정치에 열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대

편을 비방하고 악독스럽게 못마땅한 어조로 정치를 그만두라는 독설(毒舌)을 매스컴에서 내뿜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법의 판단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스스로 정계를 떠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종과 독설은 국민의 선택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왕조시대 군주조차도 공과사를 분별하지 못한 당파를 경계했다. 특히 조선 숙종 때 당쟁은 최악의 비극을 초래했다. 숙종은 당쟁과 훈척(나라에 공로 있는 임금의 친척) 세력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환국(換局)을 단행했다. 그러나 당시 봉당은 자신이 속한 당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고 다른 당을 비방해 죽임으로 내몰아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된 잦은 환국은 고변(告變)과 옥사(獄事)로 관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 당쟁은 처음에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사림(士林)의 속성에 시작됐으나 점차 흑과 백, 음과 양처럼, 아(我)와 비아(非我), 적과 동지를 구별해 귀양, 삭탈관직, 생과사를 넘나드는 극한적 대립이 지속됐다. 숙종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밤낮으로 경영하는 바가 오직 남을 모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면서 이름을 팔고 세력에 추종할 뿐"(이성무 저, 조선시대 당쟁사)이라며 한탄했다. 지금 여야의 대립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당시에도 숙종의 초빙으로 당대의 실세이자 학자도 송시열, 박세채, 윤중의 3원로를 임조하는 '3인동사(三人同事)'로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당쟁의 대립이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림의 대부분이 가문, 친척, 동문과 사제지

간에서 정적(政敵)으로 바뀌어 서로 간에 원한과 복수만 남게 됐다. 이런 극한의 당쟁으로 힘없는 백성의 삶은 파멸해졌고, 외세 침략을 대비하지 못한 채 조선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국민은 여러 쟁점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극단적인 좌우로부터 중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선출직 의원들은 모든 쟁점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서 정치적 포용력을 취하기보다는 상대당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거나 결국 당론을 따르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모든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색을 띠게 되는 정치화(politicaliza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처방하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가치를 반영한 정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순간에 바로 정치화가 등장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모든 사안을 당파적 입장에서 공격하고 있으며 정책적 근거와 반박을 제시하는 행위조차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여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만 남았다.

국민은 정치권이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지는 않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여러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여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허위와 조작을 밝히려는 심판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社說

가장 큰 소멸위험 전남 인구감소 저지 사활 걸어야

전남이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615)과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지수는 20-39세(임신·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으로 분류한다. 전남은 전체 인구가 179만8천명으로 10년 전보다 5.1% 감소했고, 20-30세 여성은 23.4% 급감했다.

특히 2022년 나주와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도청이 소재한 무안과 서부권 대표 도시 목포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이로써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으로 늘게 됐다. 순천과 광양시만 주의 단계로 남았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도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

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백악으로 꼽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615)과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지수는 20-39세(임신·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으로 분류한다. 전남은 전체 인구가 179만8천명으로 10년 전보다 5.1% 감소했고, 20-30세 여성은 23.4% 급감했다.

특히 2022년 나주와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도청이 소재한 무안과 서부권 대표 도시 목포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이로써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으로 늘게 됐다. 순천과 광양시만 주의 단계로 남았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도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

올여름 장마 변동성도 무시못해...철저하게 대비를

여름 장마가 본격화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이번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루 최대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된 만큼 국지성 극한호우에 대한 우려도 가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세찬 폭우에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구례가 218mm로 최고였고, 광주는 126.5mm로 조사됐다.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도로 물 고임·침수,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주택 담장 무너짐, 간판 흔들림 등 50여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기상악화로 항공기와 여객선도 많이 묶였다.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안도해선 안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옥이나 하천과 강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다. 산사태 및 비탈길 등 지반 침하에 대한 경계도 늦출 수 없다.

기상청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돌풍에 대한 대비도 당부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재차 점검해야 한다. 주민들도 특보 발령을 예의주시하고 살행해야 한다. 지하차도, 천반 등 위험시설지역 교통 및

출입 제한, 무등산·월출산·다도해수공원 탐방로 통제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구촌 곳곳이 살인적인 폭염과 홍수, 폭풍 등 각종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최소 수억명이 그 영향권에 놓였다. 복합재해가 일상이 되는 모습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가속된 온난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구 온도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바다의 수온도 계속 오르고 있다.

기상청은 6-8월 보고서를 통해 장마 시기 예년에 비해 비가 더 자주,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다.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던 2023년에 비가 더 자주 내리는 무더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끝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무시 못한다. 그동안의 패턴이 깨질 수 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이 최고인 해는 2020년으로 700mm에 달했다. 유난을 떨 장마가 다행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현장칼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농업의 미래 밝히다



김 건 경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이사장

최근 몇 년간 우리 농업계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과 생존력이 약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인의 약 40%가 농업을 시작하는데 자금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45.3%가 자금 조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도입,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

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전농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산농지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인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은 일정기간 수령받는 직불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은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상담회, 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고 농업인의 참여를 함께 독려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등 전산화를 활용해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 한 번 방문으로 농지 매도 및 은퇴이양직불 약정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이양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젊은 농업인들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노력도 역시 중요하다.

어느덧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반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성과에 대해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사회, 정부 부처가 협력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소통 채널을 상시 마련하고 적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시행된 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삶과 농정에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필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의 홍보노력과 제도개선, 농업인단체 등 지역사회 및 농업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지사(061-380-41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독자투고

집회현장 확성기 사용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 개최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공에 알리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성기의 사용이다.

확성기는 필연적으로 소음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개최장소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방법은 집회현장의 소음을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주거평온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기 위해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55-75데시벨(db) 이하, 최고소음도는 75-95데시벨(db) 이하로 정하고 있다. 측정시간도 10분에서 장소에 따라 5분으로 단축됐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시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방식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였는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집회 개최자들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주거평온권)을 유념하면서 집회를 개최해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며 집회의 목적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양지혜·완도경찰서 경비반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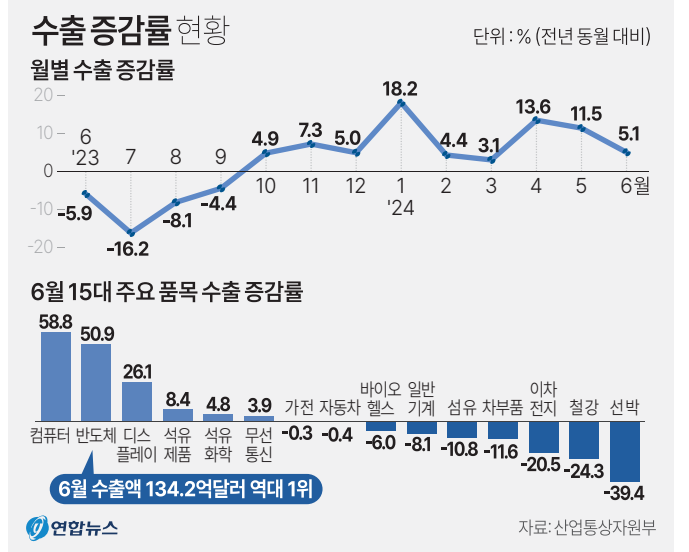
수출 9개월째 증가세...반도체 134.2억달러로 역대 최대

한국의 6월 수출이 작년보다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업황 개선 속에서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달러를 넘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570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4억2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6월 대(對)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2천만달러를 나타내면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새로 써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작년보다 1.8% 증가한 107억달러를 나타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작년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여 월간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제...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